

정책서 복지까지 '노동 서비스 플랫폼'...노동계 일단 공감

'광주상생 일자리 재단' 광주형일자리 돌파구 될까

한노총과 물밑 교감 속 추진

노동계 재단 설립 참여편

광주형일자리 정상화 급물살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꺼내 든 가정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은 노동계도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가 주축이 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물론 광주시의 노동 정책, 노동 관련 단체, 시설 등을 지원·운영하는 이른바 노동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근 제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동 관련 재단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하고, 기본적 대화마저도 거부했던 노동계가 27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전격적인 만남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29일까지 노동계 복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 주주들도 이날 노동계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은 일단 내달 10일을 전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총회를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의장이 이날 내부는의 절차 등을 내세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의 특성상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 기류가 부정적 기류로 바뀔 수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광주시측은 노동계와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눈 만큼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노동계가 물밑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 상당한 교감을 나눴기 때문이다.

실제 재단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다. 재단은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에 관여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노동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단,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과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와 노동 분야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게 이용섭 시장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절차대로 재단을 설립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노동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추진단부터 바로 꾸리겠다는 게 시장의 구상이다. 추진단장은 무임금 비상임 직위로 노동계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실무는 책임직 4급(과장급) 사무국장은 공모할 방침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노동계와 사전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노동계가 재단 설립에 참여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복귀와 함께 사업 정상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노동계가 빠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신설 재단도 당연히 노동계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오른쪽)를 방문,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을 만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불참 선언을 한 한국노총에 가정 '광주 상생일자리 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 남북협력 새 기회...현실·실천적인 길 찾겠다"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아...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일축

신임 법무부 차관 광주출신 고기영 동부지검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년을 맞아 27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

다"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우선 과제로 남북 간 '코로나19 협력'을 꼽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으로 약화한 남

북관계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경제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읽힌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사실상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이 공동 추진할 협력 사업으로 ▲남북 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

(55) 동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법무·검찰 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고 신임 차관은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쳤으며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오수 현 차관은 2018년 6월 임명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김 차관은 자기 국민권익위원장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겸손한 의정활동 해 주세요

민주당 초선 83명 위크숍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4·15 총선 당선자 등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27일 국회에서 위크숍을 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지역구 초선 68명과 비례용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15명을 포함, 총 83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18명 중 생애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당선자는 13명이며 이날 위크숍에 전원 참석했다. 광주의 경우, 8개 지역구 중 초선인 윤영덕·이병훈·양향자·조오섭·이형석·이용

민·민형배 당선자 등 7명 그리고 전남에서는 10개 지역구 중 김원아·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윤재갑 당선자 등 6명이 위크숍에 함께했다.

또 4·15 총선 이후 초선 당선인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인 이날 위크숍에선 윤호중 사무총장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박동민 윤리심판위원은 윤리규범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주제로 단상에 섰다. 민주당은 전체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위크숍은 내달 7일 원내대표 경선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정치권, 범죄자 전두환 법정구속·사죄 촉구

광주지역 정치권은 27일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구속과 사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병환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은 그동안 골프를 즐겼고, 쿠데타의 주역과 호화 오찬을 즐겼다"며 "또다시 광주를 모욕하고, 광주 시민을 우롱했으며 사법부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수 없이 주어진 참회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고, 인생 말년까지 노욕을 유감없이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파렴치한 범죄자 전두환을 즉각 구속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은 그동안 수없이 주어진 참회의 기회를 뒤로 한 채 진실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을

자행해 왔다"면서 "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향자(광주 서구을)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재판이 끝나도 전두환은 광주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는 자들 또한 계속 생길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에서 "재판부는

전두환 측이 어떤 사유를 들더라도 불출석 사유를 더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 씨와 학술 세력을 역사적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생물학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복되는 5·18역사왜곡을 근절하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